

동방신기 해체 한다면 득보다 실이 더 많아



만약 동방신기가 해체한다면 각 멤버들뿐만 아니라 소속사 SM, 그리고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걸쳐 엄청난 손실로 이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.

2004년 데뷔한 동방신기는 빼어난 노래 실력과 퍼포먼스 등을 앞세워 국내에서 80만 명에 이르는 팬 클럽 '카시오페아' 회원을 갖고 있으며 일본, 중국, 태국, 대만 등에서 한류 스타로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. 특히 2005년 일본에 진출한 후 오리콘 위클리 싱글 차트 6회 1위 기록을 세우는 등 '윤사마' 배용준, 보아 등에 잇는 성공한 한류 스타로 평가받고 있다. 이들의 해체는 국내 팬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국의 팬들에게도 큰 충격이며 근래 들어 쇠퇴기에 접어든 한류 산업의 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게 틀림없다.

해체의 수순을 밟을 경우, 세 멤버인 영웅재중, 믹키유천, 시아준수도 향후 활동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. 설령 이들 세 멤버가 SM과 결별 후 새로운 소속사에서 동지를 틀고서 새로운 이름으로 활동하다손 치더라도 SM과 지루한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. 또한, 2001년 H.O.T의 해체 사례를 보더라도 독립 후 성공을 보장하기 어렵다. 당시 SM과 계약이 먼저 끝난 토니안, 장우혁, 이재원이 그룹 jt로 거듭나 다양한 사업과 그룹 및 솔로 활동을 했지만, H.O.T 전성기만큼의 성공은 거두지 못한 게 사실이다.

국내 최대의 연예 기획사이자 코스닥 상장사인 SM이 치러야 할 대가도 상당하다. 우선 국내외적인 이미지 실추 뿐만 아니라 동방신기가 빠짐으로써 생기는 매출 손실, 그리고 현재 소속된 소녀시대, 슈퍼주니어 등 다른 가수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.

팬들 뿐만 아니라 대다수 가요 관계자들이 세 멤버가 SM과 극적인 화해를 이루고 예전의 동방신기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유는 간단하다. 여러모로 득보다 잃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.

김용습기자 snoopy@

모바일로 보는 스포츠서울뉴스(무료) 휴대폰열고 22365+NATE/magic®/ezi 접속

09/08/03 20:42 입력 : 09/08/03 22:20 수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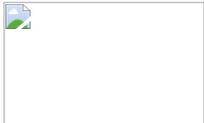
▶ 기사목록



- ▶ 미스정윤이의 뽀얀얼굴 집중탐구!
- ▶ 결혼할때 필요한게 과연 뭘까?
- ▶ 허걱! 5분만에 2억 원 당첨!
- ▶ 남성수술 리얼동영상 대공개!!
- ▶ 3만원으로 평생 애인만들기!
- ▶ 중국유학간다고? 너 미친거아냐?
- ▶ 무려 3번 1등 로또당첨
- ▶ 뱃살 다이어트를 양파즙으로 하다.

SS 뉴스캐스트 한 눈에

[A-로드, 약물없이 부활하기 힘들다? 선후배 말싸움...'네 탓' 위기의 LG](#)



[中'짜통 승혜교'도 재벌2세와 열애중?](#)

- [롯데, 마산전 잃고 '女심' 언다 | 박지성, 첼시전 출격완료!](#)
- [박정아♥길, 1년간 비밀열애 왜? | 김혜수 "내 웃이 과해?"](#)
- ['결별'이서진, 사생활 질문에... | 왕석현이 반한 女배우](#)